

지역 소식통

고창군의회, 농특산물
홍보·판매 촉진 나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간 2일간 열린 김포시 '고창 장터의 날'의 날을 맞아 고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날 고창군의회 조만규 산업건설위원장과 오세환 의원은 김포시 의회를 방문하여 김포시의회 오강현 부의장과 정영해 의원, 고창출신 최명진 전 의원과 만나 고창군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촉진을 위한 의회간의 교류를 추진하였다.

또한,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김포농협(조합장 김병희) 하나로 마트 고창 특산물 판매장을 방문하여 조합장과 만나 특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하였다.

조만규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창군 특산물 홍보와 판매에 앞장서고 있는 고창출신 최명진 전의원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모범운영

고창군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로부터 행정 신뢰의 모범이 되고 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부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인 연 300일 이상 가동을 준수하고 있다.

특히 대기배출가스 기준(월2회 측정, 암모니아의 26개항목)을 초과항목 없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쓰레기 5884톤(청소차량 3280대 분량)을 소각했다.

또 고창군 소각시설은 방지시설 SCR(선택적촉매반응-질소산화물제거)과 백연저감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안정적이다.

주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연 1회 검사하게 되어있는 다이옥신 검사를 군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무장기포지' 문화제 지정

공음면 구암리서 국가 사적 지정 기념 축하행사 열어... 전북도 관계자·지역 주민 참석

고창군과 문화재청이 14일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서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형수 고창군 부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문화재청·전라북도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포지로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장소이다.

무장(茂長)은 조선시대 당시의 지명이며, 기포지(起砲地)는 동학농민혁명군이 봉기를 일으킨 장소라는 뜻이다.

그동안 고창 무장기포지는 장소상에 의미가 있었으나, 유적과 유물로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어려워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기포지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조사, 학술대회 및 마을 원주민의 일치된 증언 등을 통해 현재의 위치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발생한 장소임이 인정되어 2022년 5월 2일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 행사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 전문가의 강연 등

이 진행됐다. 본 행사에서는 △고창 무장기포지 지정 경과 및 보존방안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사적 발굴·지정 유공자 표창 △개회사, 축사, △해설사와 함께하는 사적 탐방 등 순으로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무장기포지의 사적 기념행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사적 지정으로 고창 동학농민혁명의 위상과 역사성을 인정받았다"며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필수 방문코스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정석 심의 부안 부군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관과소장, 읍면장과 함께 주요사업장을 방문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민선8기 추진 사업 현장 확인

이정석 부안 부군수, 12개 읍면 37개 주요 사업장 현장 소통행정

이정석 심의 부안 부군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관과소장, 읍면장과 함께 주요사업장을 방문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민선8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과 운영중인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진한 부분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개선안을 찾아 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행정 첫째날 변산면 소재 직소천 하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부안 라포트 Golf & Resort 조성사업, 격포항 권역다위 거점개발 사업 등 12개 읍면의 37개 사업장을 방문해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석 부군수는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장과 운영시설 점검을 통해 주요 추진 현안사업 등을 정확히 살펴 비례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이라는 군정비전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수시로 현지 출장을 통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석 부군수는 지난 10월 21일자로 부임했으며 김계 출신으로 전주대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전북도 체전준비단 체전기획팀장, 토탈관광팀장, 관광총괄과장,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노력해달라"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친절 행정서비스 강화·민원 만족도 향상 노력도 '강조'

이학수 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8개 분야 78개 공약사업을 발표하며 공약 실천의 강한 의지를 표했다"며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도비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부서장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

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 기대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도 주관 출산 장려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자녀 출산과 육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 보건소는 지역 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제와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 검사와 기형아 검진을 시행하며 임신부들을 관리해 왔다.

또 예비 신부와 결혼 1년 이내 예비맘에게 풍진과 B형간염, 간·신장 기능 검사, 고지혈증, 당뇨 등 8종의 혈액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건강한 출

산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부 건강 교실과 육아 교실, 공예 교실, 모유 수유 클리닉을 운영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임신부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출산장려사업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

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되면 지역 내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인한 산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출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노을대교로 지역발전 착수보고회 열어

고창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노을대교 건립에 따른 관광자원 및 에너지 자원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77호선 고창 해리? 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일명 노을대교 건립공사)'에 앞서 고창군에서 노을대교와 연계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계획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고창군은 △연계 교통망 확충 △주변지역 개발 △에너지 자원 발굴 △민간투자 유치 방안 △서해안권 관광발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제적인 준비로 연계 관광사업을 개발해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든든한 관광을 실현하고, 서해안권 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 발굴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